나는 하늘 먹는 사자다

(에스겔 19:1~14)

1.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2.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3.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4.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5.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6.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7.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8.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9.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는 하늘 먹는 사자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나는 하늘 먹는 사자다'

우리가 읽은 1~9절까지는 두 사자의 비유가 나오고, 10~14절까지는 다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자는 유다 왕조의 마지막 네 왕들 중에서 애굽으로 잡혀간 여호아하스 왕과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키가 높은 가지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두 비유를 통해 유다 왕조가 끊어짐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선민의 나라에서 왕의 존재는 선민의 정체성을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으로 나타내는 자입니다. 왕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선민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임을 드러내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조가 끊긴다는 것은 곧 선민의 선민다움도 지상에서 없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선민이라는 이름은 껍데기로 남아있겠지만 선민다움의 알맹이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슬퍼하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선민의 선민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민은 하늘 먹는

사자(獅子)입니다. 여러분이 선민이라면 하늘 먹는 사자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늘 먹는 사자가 되지 못했고 결국 선민다움은 끊어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먹이와 열매입니다. 본문에 암사자가 새끼 사자를 키웠는데 먹이 뜯기를 배우자 사람을 삼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열매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선민은 하늘 먹는 사자입니다. 즉 하늘을 먹잇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으로 하늘을 먹는 것입니다. 마음이 먹게 되면 몸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먹이와 열매라는 키워드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비유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마음으로 먹고 나면 느낌과 생각과 의지가 생깁니다. 이 느낌과 생각과 의지는 마음으로 먹은 것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다 소화되고 나면 말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벌이 꽃에 있는 화밀을 먹고 소화시킨 후에 꿀을 토해내듯이, 사람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먹고 나면 느낌과 생각과 의지의 작용으로 소화를 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먹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나를 둘러싸고 있거나 만나게 되는 많은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현실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첫 번째로 관심하여 현실이 되는 대상이 먹잇감입니다. 첫 번째 관심의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과 의지가 발동되는 중에 나머지 모든 대상들에 대한 관계가 발생하고 열매로써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입시의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김 과장님과 박 부장님에게는 모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적어도 대학입시 발표를 전후해서는 온 마음이 자녀의 합격여부가 마음의 첫 번째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합격여부를 마음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과장님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박 부장님의 딸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김 과장님의 마음에서는 긍정적 느낌과 생각과 의지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웃음과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회사에서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을 겪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가는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박 부장님의 마음에서는 부정적 느낌과 생각과 의지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첫 번째 현실이 바로 마음이 먹는 먹잇감입니다. 선민의 먹잇감에 대해 요한복

음 6장 53~5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믿고 고백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첫 번째 현실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영역마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어떤 일도 내 마음에 들어와서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암에 걸렸어도 이 문제가 마음의 첫 번째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암이 걸린 사람은 암에 걸렸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두 가지 사실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첫 번째 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가 바로 선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돈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선민이 먹어야 할 첫 번째 현실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서 먹어야 할 먹잇감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현실로 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현실로 받아들임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고 승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먹고 계십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계시듯이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먹음으로써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자 됩시다, 하나님을 먹고 배부르십시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십시다.”라는 말을 자주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별도의 존재로써 하나님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우선적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십자가가 첫 번째 현

실이 되면 삶의 문제들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생각한다면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마음이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을 먹고 나면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늘을 먹는 삶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나의 첫 번째 현실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에게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로써 꼼짝 못하는 동안에 마음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먹게 될 때에 생겨나는 느낌과 생각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손을 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과 생각과 의지로 인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선민의 삶이고 본문에서는 이를 사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어미 사자는 유다 나라이며 새끼 사자는 왕들입니다. 이 새끼 사자 중 하나는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었고 하나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가 이어집니다. 한 가지가 높게 자라 무성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유다 나라이며 높게 자란 가지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뽑히고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가지는 꺾입니다. 유다 왕조가 완전히 망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망하게 될 유다 나라에 대하여 애가를 부르는데 두 가지의 비유는 별도의 비유가 아닙니다. 두 가지 비유를 합쳐서 선민 됨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먹고 몸으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먹이를 물어뜯는 것은 사자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먹잇감으로 사람을 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선민의 대표로써 하늘을 먹는 선민다움의 모범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늘을 먹지 않고 이방나라들 왕처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먹잇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삼키게 되었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먹이를 먹는다는 행위는 굳이 사자에 한정된 것이 아닌데 왜 사자로 비유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라고 하였습니다. 선민을 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민은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양으로 비유됩니다. 시편 23편 1절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사자로 비유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양의 특성을 잘 생각해보면 왕과 사자로 이어지는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은 오직 목자만을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만을 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선민이

라면 목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선민들은 삶을 사는 동안 양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보자면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자는 왕뿐입니다. 동물로 비유하자면 사자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선민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양이지만 이 땅에서는 사자이자 왕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의 모습은 결코 왕이나 사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겠지만 타인의 의견에 의해 삶이 좌우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타인의 말에 좌우되는 사람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 양이라면 세상에서는 왕과 사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설교도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설교의 의미는 분명해야만 합니다. 설교는 선민을 양 되게 하는 자리로 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설교가 개인적인 삶에 대한 지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면 잘 살 것이고, 저렇게 하면 부부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등의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먹잇감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기업을 삼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면 그 사람은 왕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는 각자의 삶에서 성도들을 왕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사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노예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노예생활을 한 것은 단순히 노예라는 신분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노예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과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사자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선민의 선민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의 비유가 등장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라고 하였습니다. 사자가 물어뜯기를 배운 뒤에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이방의 왕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당연할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왕위를 더

욱 공고히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민의 왕들에게 요구된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사자로 보이는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늘을 먹는 자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유다 왕조를 시작한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늘을 잘 먹는 자였습니다. 골리앗을 앞에 두었을 때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아닌 골리앗을 현실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골리앗을 먹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먹었으니 그 느낌과 생각과 의지로 소화가 되고 말과 행동에는 두려움과 무기력함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현실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먹었으니 그 느낌과 생각과 의지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말과 행동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물보다 크신 만군의 하나님을 먹은 다윗에게 골리앗은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무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배에서 주무신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고 먹었던 것입니다. 하늘을 먹고 느낌과 생각과 의지로 소화하시니 풍랑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과 풍랑 중에서 마음으로 풍랑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느낌과 생각과 의지로 소화시키게 되고 두려움을 느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역대 유다 왕가에서 다윗을 비롯해 하늘을 먹는 사자의 모습을 보인자들은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래알 같이 많은 적군들이 밀려오면서 예루살렘 성은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한 순간 적군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였습니다. 성전에서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었고 적군이 쳐들어온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인 자신을 어린양과 함께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고 더는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적들을 첫 번째 현실로 삼았다면 군대를 앞세우는 것이 당연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세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를 맺게 되자, 적들과의 전쟁은 첫 번째 현실이신 하나님께 복속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적들로 하여금 자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늘을 먹는 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자는 왕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먹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 땅에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목자의 말만 듣는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먹은 결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의 소화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잊은 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자 했습니다. 하늘 먹는 사자가 되지 못하고 땅에서 먹잇감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속에는 내 마음의 첫 번째 현실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많은 대상과 문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배우자가 첫 번째 현실이 되려하고, 자녀들이 첫 번째 현실이 되려하고, 돈 문제가 첫 번째 현실이 되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상들을 마음으로 먹으면 느낌과 생각과 의지의 소화가 일어나고 먹은 대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먹지 못한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먹지 못한 사자의 모습이 본문 8~9절에서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의 먹잇감이 되어주겠다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는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곧바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상번제의 어린양이 죽었고, 상번제 어린양의 의미를 완성시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자들만이 선민으로써 하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가장 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을 먹는 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나타나는 느낌과 생각과 의지의 과정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하늘에서 받으시는 모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